

책자형선거공보

동구의회의원선거 동구가선거구

초량 1,2,3,6동 / 수정 1,2,4동

무소속

동북아 관광중심지 부산항 북항 부산항 북항의 아들!

관광종사원 자격증

- 호텔관리사(manager)
- 호텔서비스사
- 국내여행안내사

약 력

- 동일초등학교 육상부 100m 대표선수
- 서중학교 3년 우등상 수상
- 금성고등학교 12년 개근상 수상
- 홍익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과정 중퇴
- 4기 부산시민의회 회장(전)
- 홍익대학교 제32대 총동문회 부회장(전)

기호

관광의 달인!

5 이관우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동구의회의원선거(동구가선거구)

1.인적사항

기호	소속 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세)	직업	학력	경력
5	무소속	이관우	남	1965.11.28. (60세)	무직	홍익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학위과정 중퇴 (95.9.1~97.4.7)	·(전) 4기 부산시민의회 회장 (2014) ·(전) 홍익대학교 제32대 총동문회 부회장(2016~2018)

2.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사항(천원)		병역사항		
계	9,321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 비속
후보자	9,321	육군 상병 복무완료 (소집해제)	-	-
배우자	해당없음			
직계존속	해당없음			
직계비속	해당없음			

3.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 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누계 (완납일자)	현 체납액	
계	48	0	0	-폭행 : 2,000,000원 (2013.10.14) -모욕, 업무방해, 무고 : 징역 1년 6월(2016.12.22)
후보자	48	0	0	
배우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직계존속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직계비속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소명서

폭행 : 사상터미널에서 비 오는 날 거제도에 있는 학원에, 영어강사로 출근하기 위해서 사상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려고, 표를 끊으러 걸어가는데, 거제도에서 부산으로 올 때 버스칸에서 본 여자가 나에게 빨리 다가와 내 앞에 서길래, 나를 스토킹 하는 건지 물어보려고 불렀으나 닳투를 안해서 우산으로 팔 상단을 조금 접촉하여 부르려고 했는데, 이것을 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CCTV를 보자고 하여 봤는데 경찰의 말이, 접촉만 해도 폭행이 된다고 하면서 상대는 스토킹으로 조사도 안해보고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직장도 잃게 되었습니다.

모욕, 업무방해, 무고 : 사상구청 관제센터에서 근무할 때인데, 동료가 락카룸에서 저의 왼쪽 중지손가락을 꺾는 바람에, 손가락을 기부스하는 일이 생겼는데, 아무 이유없이 동료가 나를 공격할 일이 없다고 판단하고, 평소에 저를 괴롭히던 여기 근무감독관인 경찰관들과 구청 공무원들이 시켰다고 판단되어 배후세력으로 모두 고소하였는데,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의 힘을 이용하여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힘없는 저가 누명을 뒤집어 쓰게된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명과 경찰관 여러명과 혼자서 싸웠는데 저가 지고말았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떼거리 파워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관광종사원은 정치를 잘 안하는데,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위해 출마까지 하게되었습니다.